

책 “메콩델타-베트남의 젓줄” 소개

▶ 베트남 특히 메콩델타의 모든 궁금증, 책으로 말하다

베트남은 다종족의 젊은 나라이며 오토바이 천국이다. 언어장벽이 높아 베트남어를 모르면 생활하기 어렵다. 크리스마스에도 근무를 하며 서명은 파란색으로 해야 한다. 베트남인은 서두르지 않으면 미안하다는 말에 인색하다. 집엔 도마뱀, 들판엔 개구리, 거리엔 개가 많은 게 인상적이다.

생명의 땅, 메콩델타는 베트남의 생명줄이다. 베트남 6개광역권의 하나로 남서부에 위치하며, 1직할시 12개도로 구성되어 있다. 메콩델타 면적은 한국의 40.7%에 달하는 40.8천km²의 비옥한 대평원으로 벼 연간생산량은 한국의 4배가 넘는 23백만 톤을 웃돈다.

기차길이 없는 때 묻지 않은 자연과 고유 전통과 문화가 자랑거리고, 관광지로 유명하다. 운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해상물류가 발달되었다. 곤달갈과 쥐 고기도 시장 거래가 되며 요리해서 먹는다.

▶ 베트남 특히 메콩델타에 대한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원천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책 “메콩델타-베트남의 젓줄”은 한국의 신(新)남방정책 추진과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맞물려 베트남 특히 메콩델타에 관심 있는 정부·민간·기업·개인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원천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2017년부터 2년간 저자가 현지에 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현지의 검증은 거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사회·문화·교통·관광·음식·기후 등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도 있다.

▶ 차례

여는 글 9/ Prologue 11

1부 베트남 엿보기 14

1 베트남은 다종족의 젊은 오토바이 천국 15

젊은 나라, 베트남 15/ 베트남 종족 수 54, 이렇게 많을 줄이야! 19/ 엄마 뱃속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22/ 홍강(紅江)이 그린 하노이의 한반도 26/ 한국과 베트남 우호협력은 기대 이상 28/ 베트남 자동차시장 급증, 대책 절실 32

2 베트남인은 느긋하며 미안하다는 말에 인색 37

베트남인은 서두르지 않는다 37/ 베트남인은 이름을 몰라도 kg은 안다40/ 혼란스런 전깃줄과 태평한 시민 43/ 자기 삶에 만족하는 목공 47

3 언어장벽 높아, 베트남어 모르면 생활하기 불편 52

Chuói가 뭘까요? 베트남어 모르면 생활하기 어려워 52/ 권터시, 간판의 두 영어단어 57/ 모를 때 베트남인은 어떤 행동을 할까? 63/ 세계 최고의 만국어(萬國語), 웃음 66

4 낮선 제도; 서명은 파란색, 크리스마스엔 출근 71

베트남에서 서명은 파란색으로만 한다 71/ 베트남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 76/ 베트남인은 크리스마스에도 근무를 한다 80

5 집엔 도마뱀, 들판엔 개구리, 거리엔 개 85

나는 도마뱀과 같이 산다85/개구리는 열대에선 여름잠을 잔다91/베트남 개는 왜 나만 보면 사나워질까? 95

2부 생명의 땅, 메콩델타 100

1 젓과 꼴이 흐르는 생명 샘 101

한국면적의 41%에 달하는 대평원 101/ 기차길이 없는 농수산물의 보고 107/ -2017년 메콩델타 벼 생산량은 한국의 4.47배/ 베트남 남부는 땅 반 물 반 113/ 푸른 강이 그림자 116

2 베트남 쌀 산업의 메카 121

벼 연구의 산실, 꼴롱 벼 연구소 121/ 메콩델타의 벼 파종법 개선을 기대한다 127/ 강 따라 발전하는 메콩델타의 도정(搗精) 산업 130/ 연중 여름인데 봄, 가을, 겨울 벼는 있고 여름 벼만 없다 136/ 쌀 소매시장의 이모저모 140

3 과수원엔 배가 다니고, 고구마 밭은 끝이 안 보이네 146

배가 다니는 망고 과수원 146/ 광활한 고구마 밭과 꽃 152/ 베트남에서도 씨 없는 단감이 생산되다니! 157/ 땅콩 우량종자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161

4 이색적인 전통음식 167

빨간 밥167/파파야 열매 국을 먹어 보셨나요? 172/ 베트남 전통 쌀국수는 어떻게 만들까? 175/ 베트남 스타일 풀빵, 반코 182/ 즉석 말이 아이스크림 188/호박꽃, 베트남에선 채소로 애용191

5 곤달걀, 쥐까지 먹고 과일은 소금 짝어 먹어 195

베트남 남부에서는 쥐를 먹는다 195/ 베트남인은 곤달걀을 버릴까 아니면 먹을까? 201/ 과일과 소금이 만나면 206

6 고유문화와 풍습; 논엔 무덤, 화장실에화장지보다 비데 212

전통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손짓하는 땅212/ 베트남 4개띠 상징동물이 한국과 달라 219/ 메콩델타에는 왜 무덤이 논에 있을까? 224/ 화장실에 화장지는 없어도 비데는 있다 229/ 메콩델타에선 시외버스를 탈 때 신을 벗는다 233

7 한번쯤 가보면 좋은 곳 238

물속 숲을 보고 싶지 않나요? 238/Hon Son 섬에 있는 것과 없는 것 245/ 아름다운 꼴다오섬, 감옥(監獄)은 어울리지 않아 253/ 메콩강 끝, 베트남동해를 가다 261/베트남 첫 땅(땅 끝) 267

닫는 글 274/Epilogue 275

▶저자: 유 기 열

농학박사/ 제12회 농림기술고시/ 순창북중고등학교 교사/ 농림수산부 공무원(33년10월)/ 전북대학교 등 4개 대학교 강의(20년)/ KOICA자문관/르완다대학교 농대교수(2년9월)/

베트남 한-베인큐베이터 파크 NIPA자문관(2년)/ GLG 전문위원 및 프리랜서~

저서: 대학생(수필)/ 바다에는 후회 없는 길이 있다(시집)/ 식물검역학(대학교재)/ 르완다-

아프리카의 심장, 눈에 밝혀 그곳에 다시 가고 싶다/Se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Korea